고창군, 환경정화 나섰다

마을 주변 · 농로 · 하천둑 방치된 쓰레기 · 영농 폐기물 수거

고창군(군수 박우정) 기관사회단체와 군민들이 아름답고 청정한 마을 가꾸기에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다.

부안면이장단체협의회(회장 신연수)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군을 더욱 쾌적하게 가꿀 수 있도록 29일 부안면 용산리 복분자농공단지 등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성내면에서는 이달 한 달 동안 성내초, 성내중, 농협 등 유관기관 6개소 80여명과 30개 마을 주민 420여명 등이 참여해 각 마을 주변과 농로, 하천둑에 방치되어 있던 쓰레기와 영농폐기물 수거 등을 진행했다.

고수면 생태환경보전협의회(회장 이양수)에서도 29일 청계저수지와 고수천 일원에서 하천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저수지 주변에 버려진 폐기물을 말끔하게 청소하며 깨끗한 생활환경 마련에 힘썼다.

또한 고수면은 이날 고수면의용소방대와 합동으로 '생활 속 쓰레기 줄이기 실천 캠페인'과 산불예방을 위한 불조심 홍보 등도 적극 진행했다.

대산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강부덕)도 장자산 일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면사무소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자산을 지역명소로 가꾸고, 방문객들에게 아름답고 청정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발적인 참여로 무단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산책로 가꾸기 등 정화활동을 했다.

성송면은 29일 '새봄맞이 대청소 및 모기유충 일제 구제의 날'로 정하고 면 소재지 및 각 마을 일원에서 유관기관과 34개 마을 450여명의 주민들이 동참한 가운데 마을안길 및 진입로, 내 집·내 점포 앞, 인근 농경지에 산재한 일반쓰레기,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고 마을 곳곳에 산재한 하수구, 웅덩이의 고인물, 폐 타이어 등 모기유충이 서식하기 쉬운 장소에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기관사회단체와 군민들이 아름답고 청정한 마을 가꾸기에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다.

고창군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

행사 · 축제 · 맛집 · 관광 명소 등 게시

고창군(군수 박우정)의 풍부한 문화와 관광, 먹거리를 비롯해 소소하지만 다양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릴 '고창군 블로그 기자단'이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발대식은 29일 군청 상황실에서 박우정 군수와 선발된 블로그 기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신하고 새로운 소통행정을 위해 운영되는 '고창군 블로그 기자단'은 고창군스마트관광홍보단, 정보화연구회, 마을신문기자, 블로그 기자단 등 다양한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됐다.

블로그 기자단은 앞으로 평범하지만 인정 넘치고 따뜻한 이웃들의 이야기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고창군의 명소 등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를 발굴, 취재해 글과 사진, 영상 등으로 SNS를 통해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와 축제, 맛집, 관광명소 등 전반적인 소식을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하며,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소통에 앞장설 예정이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블로그 운영으로 군민들이 화합하고 관광객들이 꼭 한번 와보고 싶은 곳으로 고창군을 기억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블로그 등 활동범위가 무궁무진한 SNS를 활용해 참여와 소통의 공동체를 만들고 고창군의 아름답고 청정한 매력을 더욱 재밌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치즈테마파크 유럽풍 '아펜젤홀' 오픈

예식 · 세미나 · 연회 등 가능

임실군의 대표적인 치즈 명소인 임실치즈테마파크가 유럽풍의 이국적인 이미지를 담아낸 다목적홀을 오픈,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29일 임실군은 임실치즈팜랜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임실치즈테마크 아펜젤홀을 준공해 봄맞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선다.

아펜젤홀은 전면에 아름다운 호수를 배경으로 한 유럽풍으로 꾸며진 다목적홀이다.

최근 예식의 트랜드인 작은 결혼식과 소규모 세미나, 연회, 공연 등이 가능하며, 총 수용인원은 120명이다.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폐백실과 신부 대기실도 운영한다.

또한 3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회의실을 별도로 갖추고 있어서 워크숍이나 교육장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이용이 가능하다.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장애인, 임실군민이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임실군의 대표적인 치즈 명소인 임실치즈테마파크가 유럽풍의 이국적인 이미지를 담아낸 다목적홀을 오픈,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아펜젤홀 이용자(단체)가 임실치즈테마파크 식당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스위스 아펜젤의 넓은 초원을 모티브로 조성된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사계절 푸른잔디가 어우러지는 이국적인 경관과 다양한 치즈체험,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연간 5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전라북도 대표적인 관광지로 꼽히고 있다.

군은 아펜젤홀의 운영으로 임실치즈테마크의 공간 활용성이 높아짐에 따라 예식장소는 물론 도내와 타지역 단체 등의 워크숍과 세미나 등 예약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 6일부터 4일동안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일원에서 열리는 임실N치즈축제의 차별화된 공간 인프라를 제공할 전망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의견문화제 계획 및 추진방향 논의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위원장 문연걸)와 의견문화제전위원회(위원장 이용숙)가 지역축제 육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위원,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제33회 의견문화제 계획 및 추진방향'과 '지역축제 육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축제육성위는 주인을 구하고 의롭게 죽은 오수개의 희생정신과 역사적인 가치를 승화시켜 반려견 문화를 이끄는 '2017 의견문화제' 축제내용을 보고 받고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 축제의 장단점을 면밀히 따져보고 보완 및 보충을 통해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제전위는 오는 5월4일 지사면 소재 김개인 생가에서 터울림 행사를 시작으로 오수면과 의견공원 일대에서 오는 5월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제33회 오수의견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2만명의 관광객이 찾은 의견문화제는 개나무골 오수 동네 한바퀴, 전국 반려견 자랑 한마당, 전국 그레이하운드 경주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심민 군수는 "축제의 품격을 더욱 향상시키고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 군민의 새로운 소득 창출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고견을 모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이환주 남원시장, 노암산업단지 방문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지난 20일 광치산업단지 방문을 시작으로 29일 두 번째로 노암산업단지를 찾았다.

이날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은 노암산업단지 내 공사용 자재 생산기업 8개소를 대상으로 이환주 남원시장과 주요사업 부서장, 담당 공무원 등 40여 명이 방문하여 판로 관련 제품설명과 생산시설 견학, 의견청취를 진행하며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재 남원시는 노암과 광치산업단지 등 7개의 산업단지에 음식료품과 금속기계, 전자제품 등이 생산 중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현안 사업장과 민생현장 등에 이동시장실을 운영하여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토론을 통해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지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정부양곡 정기 재고조사

남원시에서는 오는 4월 1일부터 10일까지(10일간) 2017년 3월말 기준으로 정부관리양곡에 대한 정기 재고조사와 양곡보관창고(67개소) 안전관리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시에서는 지난 27일 정부양곡 보관 창고주(농협, 대한곡물협회)와 읍·면·동을 대상으로 정부양곡 재고조사 및 안전보관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일제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 및 점검은 남원시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남원사무소 합동으로 3개 조사반편성을 통해 운영하며 관내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에 보관 중인 양곡 및 가공·수송 중인 모든 정부양곡의 재고량 파악과 함께 양곡의 품위상태, 보관창고의 안전보관 실태 등 전반적인 운용 상황 등을 점검하게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행복협, 지정기탁사업 팔 걷어

임실읍행복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박만식)는 지역복지문제 해소를 위해 '지정기탁사업'에 팔을 걷고 나섰다.

협의체는 민·관 협력 확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와 지역문제 해소를 위해 전라북도공동모금회와 천사모(복지허브화) 정기기탁 사업을 추진한다.

착한가정 월 2만원 이상, 착한가게 월 3만원 이상, 1인1계좌 금액제한 없이 기부하는 정기기탁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복지문제를 지역 에서 해결하는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9일 김학성 임실읍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착한가게 1호점인 알파문구에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대대적인 동참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춘향인재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재)춘향장학재단은 지난 28일 춘향골 체육관에서 재단이사와 학생,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춘향인재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올해 선정된 장학생은 모두 147명으로, 우수장학생 65명, 특기장학생 32명, 보람장학생 40명, 희망장학생 10명이다.

고등학교 우수 신입생에게는 최고 1,000만원에서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우수 장학생 200만원, 보람장학생 100만원 등 총 2억 2천여만의 장학금을 지역인재들에게 전달한다.

한편 춘향장학재단은 1995년 설립 때부터 현재까지 매년 춘향인재 장학선발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1,678명의 장학생들에게 총19억 9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